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타국상 형성 - 중국을 사례로

이 정 희

김해 동광초등학교

I.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초등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타국상(他國像)을 어떻게 형성시키고자 하는가를 해명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 타국에 관한 내용은 주로 6년 2학기의 2번째 대단원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 많이 등장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1997년 제7차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과 교과서에는 동심원 확대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4학년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시·도의 범위까지, 5학년은 국토 전체, 그리고 6학년에 들어가서야 세계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국상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교과서에 나타난 서술, 그림, 사진 등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타국」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시키고자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타국상 형성 논리를 밝힌다.

II. 소단원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개요

1. 6학년의 소단원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개요

6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에서 세계학습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대단원 「함께 살아가는 세계」는 6학년이 되어 학습하는 세계지리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 지리적인 접근 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 등 주변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단원은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구촌 속의 우리 나라」의 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촌 속의 우리 나라」에서는 그 목적이 타국상 형성보다는 주로 자국상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소단원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는 세계지도와 지구본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과 자연 환경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소단원은 또한 「1 세계를 한눈에」와 「2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 「3 더 가까워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라는 세 개의 제재로 구성되어 있다. 「1 세계를 한눈에」에서는 세계의 지형과 세계지도 및 지구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2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에서는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3 더 가까워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주요 자원을 수입해 오는 각국들', '경제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들', '학문과 문화 교류가 많은 유럽의 나라들'로 분류하여 그 나라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교과서 지면 구성

본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2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지면 구성을 보면 크게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4개국이 2페이지씩 소개되고 있다.

4개국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며 그에 관한 내용은 72페이지의 3분의 2부터 74페이지 가운데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하 본 발표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타국상 형성 원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Ⅲ. 소단원 분석 시점과 순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타국 인식 형성 논리를 해명하기 위해, 자국상 형성과 관련된 사회과 교과서의 서술과 그림·사진 분석과 공간적 인식에 관한 서술과 그림·사진 분석, 그리고 시간적 인식에 관한 서술이나 그림·사진 분석을 분석 시점으로 설정한다. 공간적 인식은 인식 대상인 타국과 자국과의 위치 관계와 그 이미지이다. 시간적 인식은 과거의 한국(우리 나라)과 과거의 타국, 혹은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타국과의 계속·연속, 불연속적인 관계나 그 이미지를 의미한다.

이후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한다.

- ① 자국인식 형성에 관한 서술과 그림·사진 분석
- ② 공간적 인식 형성에 관한 서술이나 그림·사진 분석
- ③ 시간적 인식 형성에 관한 서술이나 그림·사진 분석
- ④ 위에서 검토한 ①, ②, ③의 분석 결과를 고찰하고, 우리 나라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는 타국상을 어떻게 형성시키려 하고 있는가를 해명한다.

Ⅳ. 분석 결과

1. 자국상 형성과의 관련

먼저 타국상을 형성시키려 할 때 자국상을 어떻게 형성 시키고 있는가를 자국인식 형성에 관한 서술이나 그림·사진을 분석하여 고찰한다.

李貞姬(2010)에서는 한국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자국상 형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즉, 한국의 초등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국상을 형성시킬 때 한국(South Korea)만, 혹은 한국과 북한(North Korea)을 합친 공간(Korea)이나 시간을 학생들에게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국상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에는 자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먼저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 [그림 1]를 통해 알아보자.



[그림 1] 제재 「2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국 지도
(교과서 72페이지, 점선은 필자에 의함)

[그림 1]은 제재 「2 우리와 관계 깊은 나라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국이 그려진 지도이다. 지도상 우리 나라(Korea)를 나타낸 부분(점선으로 그려진 원안)을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이 같은 색으로 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지도를 보고 있는 학생을 남과 북 단일국가 안에 귀속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다음 지도인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는 베이징이 이중 사각으로 표기되어 중국의 수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중심도시는 이중 원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한국(Korea)의 수도는 서울(이중 사각으로 표시)로 표기되어 있으며 평양은 부산과 같은 수준의 도시로 나타나 있다. 학생들을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공간에 위치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수도의 표기

2. 타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 형성

타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은 학생이 속해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시키고 있다. [그림 1]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이 지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서술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우리 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일본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p. 72, 밑줄은 필자에 의함)

위의 문장 가운데 「우리」, 「우리 나라」, 「동해」는 학생을 한국에 귀속시키는 말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 중국과 일본과 같은 타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타국을 인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하여 공간적 인식을 형성시키고자 할 때에도 「우리 나라」를 사용함으로써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타국을 인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사진에서 드러난 공간적 인식을 인식 대상의 장소에 따라 분류하면, 자국내 타국 인식형, 타국중심 인식형, 타국내 자국 인식형의 세 가지가 있다.

가. 자국내 타국 인식형

【자료 1】의 아래 부분(사진①)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이것을 보고 있는 학생은 한국의 독자적인 건물과는 다른 점으로부터 타국인 중국을 이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이나타운 안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인다. 이것을 보고 있는 학생은 자신을 한국 안에 위치 짓고,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의 모습을 통해서 타국인 중국을 이미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학생들의 생활과 다소 먼 있는 중국을 보다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시켜 중국과의 거리감을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타국중심 인식형

【자료 2】의 좌측 위의 사진(천안문)과 그 아래 사진(황하) 2장 (사진②, ③), 그리고 교과서의 서술을 검토해 보자.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라는 기술과 천안문 사진을 통해 학생들은 중국 고유의 모습으로 중국 그 자체를 이미지할 것이다. 또한 황하의 사진과 이를 설명한 기술로부터 역사 깊은 나라임을 인식한다.

중국 내에 있는 천안문과 황하 사진, 그리고 서술을 통해서 학생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머릿속에서 타국인 중국을 구체적으로 천안문(크다)과 황하(역사 깊다)가 있는 나라로서 이미지 한다. 이는 자국과의 관련 보다는 주로 타국 그 자체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부분이다.

다. 타국내 자국 인식형

타국내 자국 인식형 사례는 【자료 2】에 나타난 4장의 사진(사진④, ⑤, ⑥, ⑦)이 해당되며, 가장 많은

형태이다.

사진④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에 나타난 중국어와 영어로 된 현수막으로부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 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국 내에서 양국이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학생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련(교류하는 나라)을 인식할 것이다.

사진⑤는 중국의 모토 쇼에 참가한 우리 나라의 자동차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은 중국 의상을 입고 있지만 자동차는 한국 제품인 것이다. 또한 사진을 설명하는 부분인 「우리 나라 기업의 중국 모터 쇼 참가」라는 서술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중국을 이미지화면서, 중국에 있는 한국 자동차를 통해 양국의 교류를 인식할 것이다.

사진⑥은 상하이의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있었던 곳을 나타낸다. 이것을 보는 학생은 상하이를 상업도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 중 하나로 인식할 것이다. 또한 사진⑦은 중국 지역 가운데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옌벤지역 사람들의 모습이다. 중국의 상하이와 옌벤지역의 사진으로부터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지역으로서 인식하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열거한 4장의 사진을 통해 학생은 한국에 있으면서 타국내 (중국)에 있는 자국(한국)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검토한 한국 초등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중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 형성 원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학생의 자국인식 형성으로부터 타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둘째는, 공간적 인식을 형성하는 방법은 자국내 타국 인식, 타국중심 인식, 타국내 자국 인식의 세 가지가 있다.

셋째는, 교과서의 사진 배치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보는 학생의 눈은 U자 순서대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공간적 인식을 형성하는 순서는 자국내 타국 인식으로부터 타국중심 인식으로, 그리고 타국내 자국 인식의 형성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는, 타국내 자국 인식형이 가장 많으며, 타국중심 인식형, 자국내 타국 인식형의 순서대로 많이 다루고 있다.

3. 타국에 대한 시간적 인식 형성

중국에 대한 시간적 인식 형성을 교과서의 서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특히 교과서 73페이지의 서술을 보면 그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타국 관련 인식형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서술 목적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련에 대해 인식시키는 유형이다. 주로 과거와 현재의 한국과 과거와 현재의 중국과의 관련에 관한 서술이다.

둘째는, 타국중심 인식형 (두 부분)이다. 이것은 타국, 즉 중국에 대한 과거나 현재를 인식시키는 유형이다.

셋째는, 자국중심 인식형 (세 부분)이다. 이것은 타국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이 자국

인식에 있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보도록 하자. 분석에 있어서는 三浦(2006)의 『こころとことば』를 참고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 자타국 관련 인식형

자타국 관련 인식형은 73페이지의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서술에 나타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p. 73)」

문장 중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라는 부분을 읽는 학생은 머릿속에서 현재의 한국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현재의 중국을 인식한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나라와」는 과거의 중국과 과거의 한국과의 관련을, 그리고 「맺어 왔다」로부터는 과거 양국과의 관련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이미지하리라 생각된다.

나. 타국중심 인식형

타국중심 인식형은 교과서 73페이지의 좌 중간에 있는 서술로부터 볼 수 있다.

「황하는 매우 큰 강으로, 일찍이 이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발달하였다.」 (p. 73)

학생들은 「황하는 매우 큰 강으로」를 읽음으로써 현재 한국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분리하여 머리 속에서 중국에 있는 큰 강을 이미지하게 된다. 그리고, 서술 「일찍이 이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발달하였다.」의 「일찍이」와 「발달하였다」를 읽음으로써 현재의 중국으로부터 과거의 중국으로 더 옮겨 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중국의 현재와 과거를 인식시키고 있다.

다. 자국중심 인식형

자국중심 인식형의 서술 사례는 73페이지의 좌측 밑과 오른쪽 두 부분을 합쳐 모두 세 부분에 나타나 있다.

먼저 첫번째 예를 검토해 보자.

「동부 해안과 남부 해안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p. 73)

이 문장을 통해 인식하는 공간은 중국이다. 그러나 주어가 「우리 나라의 기업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읽는 학생들은 머리 속에서 자신을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위치 짓고, 또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로부터 현재 중국에 있는 한국을 이미지하게 된다. 또 「점차」, 「넓어지고 있다」를 읽음으로써 현재 중국에서의 상황이 중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기업이 점점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하게 된다. 즉, 중국에 대한 시간적 인식을 형성시키기 보다는 중국에서의 한국의 현재 모습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국중심 인식형의 두번째 예로서는 다음 문장을 들 수 있다.

「상하이에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가 있던 곳으로, 우리 나라 독립 운동의 근거지였다.」 (p. 73)

위의 「상하이」를 통해 학생은 현재 한국(우리나라)에 있는 자신으로부터 중국 현재의 상하이로 옮겨 간다. 또한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읽음으로써 학생은 과거의 한국(나라를 빼앗긴 역사)을 이미지하게 된다. 그리고 「있던 곳」을 통해 과거의 한국 역사가 과거의 중국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라는 말을 통해 학생을 한국인의 일원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독립 운동」도 「대한 민국 임시 정부」와 동일하며 「(근거지)였다」도 「있던 곳」과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상하이)을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과의 관련으로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국중심 인식형의 세번째 예로는 다음 문장을 들 수 있겠다.

「엔벤 지역은 ~ (생략)이다. 우리 동포들은 독립 운동을 위해 만주 일대에 많이 이주하여 살았으며, 그 후손들은 지금도 자치주를 만들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어 가고 있다. (p. 73)」

「엔벤 지역」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현재 중국의 엔벤을 이미지하게 된다. 「우리 동포」는 이것을 읽는 학생들을 같은 한민족으로 귀속시킨다. 「독립 운동을 위해」는 학생들을 과거의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많이 이주하여 살았으며」는 학생을 과거의 한국으로부터 과거의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지금도」와 「이어 가고 있다」로부터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관계를 과거의 한국과 과거의 중국의 관계로부터 현재의 한국과 현재의 중국과의 관계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중국 지역을 한국의 현재로부터 중국의 현재, 한국의 과거와 중국의 과거를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간적 인식 형성 방법을 정리하면 자타국 관련 인식, 타국중심 인식, 자국중심 인식이 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시간적 인식을 형성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자타국 관련 인식으로부터 타국중심 인식, 그리고 자국중심 인식의 순으로 형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분석 결과 정리

이상의 검토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밝혀졌다.

첫째, 남과 북이 하나된 단일의 자국인식으로부터 타국상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자국(한국)으로부터 타국의 공간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타국(중국)에 대한 세 가지의 공간적 인식 형성 방법(자국내 타국 인식형, 타국중심 인식형, 타국내 자국 인식형)이 있으며, 공간적 인식을 형성하는 순서는 자국내 타국 인식으로부터 타국중심 인식으로, 그리고 타국내 자국 인식의 순으로 형성하고 있다.

넷째, 타국(중국)에 대한 세 가지의 시간적 인식 형성 방법(자타국 관련 인식형, 타국중심 인식형, 자국중심 인식형)이 있으며, 자타국 관련 인식, 타국중심 인식, 자국중심 인식의 순으로 형성하고 있다.

V. 고찰

지금까지 한국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드러난 타국상형성에 관한 기술과 그림, 사진을 검토함으로써, 타국에 대한 공간적 인식과 시간적 인식 형성에 있어서 타국 그 자체에 대해 인식하는 타입이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타국상 형성에서 자국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타국상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을 사례로 타국상 형성 원리를 검토하였으나, 타국상 형성에 있어 그 인식 형성의 순서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검토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6-2. 대한교과서.

李 貞姬 (2010) 「韓国小学校社会科教科書における自国像形成—統一教育を事例に—」社会科教科書国際比較セミナー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

三浦つとむ (2006) 『こころとことば』明石書店.

【자료 1】 사회과 교과서 「사회 6-2」의 본문(p. 72)

2 우리의 관계 깊은 나라들

●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한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조사해 보자.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러시아의 네 나라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영수는 지도에서 이 나라들을 찾아 보았다.

▶ 우리의 관계 깊은 나라의 특징을 알아보자.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일본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치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인데, 두민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이웃해 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한자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 젓가락을 사용하며,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등 상통점이 많다. 그 까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 나라가 오랜 옛날부터 서로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 우리 나라의 차이나타운(인천)

【자료 2】 사회과 교과서 「사회 6-2」의 본문(p. 73)

더욱 격격해진 이웃 나라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다. 수도는 베이징(북경)이다.

황해는 매우 큰 강으로, 일찍이 이 곳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발달하였다.

동북 아인과 남부 아인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건국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외항하는 대한 관공 역시 중국과, 외교적으로도 우리 나라와의 교류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 도시 쇼에 볼거릴 우리 나라의 자랑차

73